

태국 칠일불(七日佛)의 상징색채와 복식

소 황 옥⁺ · 김 다 민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패션예술학과 석사과정

The Study on Symbolic Color and Costume of The Seven Days Buddha in Thailand

Hwang Oak Soh⁺ · Da min Ki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hung-Ang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Art, Chung-Ang University

(투고일: 2014. 9. 18, 심사(수정)일: 2014. 11. 27, 게재확정일: 2014. 12. 1)

ABSTRACT

In traditional costume, colors have been used to express the religion, society, culture, custom, and other aspects of a country. This is mainly due to color being the most conspicuous visual factor of a costume. In *Thailand*, there is a symbolic color for each day of the week,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hailand* culture in regards to color and its costumes. The study method is as follows: literatures and photos were researched for social and religious background of the seven days *Buddha* history, which was the source of the color a day culture, symbols and significance of each *Buddha* were studied and precedent studies were reviewed. The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ymbolic color on costumes as it passed down from generations. Originally, the symbolic colors of seven days *Buddha* in *Thailand* was a religious component that was exclusive to the upper class. However, it has expanded to the lower classes today. Currently, it obtains an aspect of health and wealth gospel for oneself or others as well as being used to express individual personality because people regard certain color as their symbolic color.

Key words: buddhism(불교), symbolic color(상징색채), Thailand(태국),
the seven days buddha(칠일불)

I. 서론

색채는 복식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전통 복식문화에서는 각 민족의 종교, 사회, 문화, 관습 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써 활용되었다. 서봉하¹⁾는 아시아의 종교는 종교이자 철학, 문화이며 민족 그 자체로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고, 복식의 양식을 결정해왔다는 결론을 내리, 아시아국가의 복식문화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향단, 유보현²⁾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전통 복식에서 색채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발전되어 사회의 계급이 형성됨에 따라 자연적인 승배에서 사회계급통치의 수단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음정선, 채금석³⁾은 한국의 전통 색채관은 음양오행, 자연주의와 고려시대에 성행한 불교, 조선시대에 중심이 된 유교, 실학 등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의 전통 색채관은 몰활론적 신앙, 음양오행, 불교, 선불교, 도교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여기에 양국의 시대적인 미의식이 더해져 색채관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종교가 복식과 복식색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복식색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문화를 이해하여 디자인 요소로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색채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연구는 2008년도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에서 발표된 백옥장, 김영순의 <한국과 베트남 전통색채의 비교문화론적 연구>⁴⁾와 2009년 황규희의 <태국정치에서 바라본 색의 상징성>⁵⁾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로써 동남아시아 지역 색채 문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중 황규희⁶⁾는 태국 사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색으로 표현하게 된 과정과 색의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각 정당들이 각각 그들을 대표하는 색상을 내세우기 때문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등을 통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태국은 정치적인 면에서 색상이 의미하는 바가 한국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태국 사회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일반 국민들도 친정부세력

과 반정부세력으로 나뉘었다. 그 중에서도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노란색을 그들을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하였는데, 노란색은 현 푸미폰(Bhumibol Adulyadej) 국왕의 상징색이기 때문에 국왕과 왕실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노란색을 선택하였다.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한 오방색(五方色) 문화를 가진 한국과 중국에서도 황제의 색으로 노란색을 사용한다. 오방색은 동, 서, 남, 북, 중앙이라는 오방위를 대표하는 색을 말하고, 그 중 노란색은 중앙을 상징한다. 그 중앙은 곧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황제의 색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국에서 국왕을 상징하는 노란색은 이러한 오방색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일색의 상징으로써, 현 태국 국왕이 월요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요일의 상징색인 노란색이 국왕의 상징색으로 된 것이다.

본 연구는 태국의 독특한 색채문화인 칠일불의 상징색채를 연구함으로써 태국인들의 색채에 대한 인식과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태국의 요일별 상징색은 왕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생일에 따라 개개인의 상징색이 정해짐에 따라 태국의 복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함으로써 태국인들의 색채에 대한 인식과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태국에서 요일별로 상징하는 색상이 정해져 있는 관습은, 각기 다른 형상의 일곱 부처가 일곱 요일을 관장하여 수호한다는 믿음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⁷⁾, 이러한 일곱 부처를 본 연구에서는 '칠일불(七日佛)'이라고 칭하고, 칠일불이 각각 상징하는 색상을 '칠일불 색채'라고 칭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헌, 사진자료 조사를 통해 요일별로 지정된 색상의 옷을 입는 관습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칠일불이 유래된 사회·종교적 배경을 연구하고, 각 칠일불의 상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칠일불을 바탕으로 발생한 태국의 독특한 복식색채 관습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동안의 변화, 유지 과정을 통하여 복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태국 불교와 칠일불(七日佛)의 유래

태국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태국 국민의 약 94%가 상좌불교도이고 무엇보다도 태국 헌법에 '국왕은 불교도이며 모든 종교의 수호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태국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의 불교는 스리랑카의 상좌부(上座部, Theravāda) 불교가 도입되어 발전한 것으로 13세기 쑤코타이 왕조시기에 전래되었다.⁸⁾ 쑤코타이 다음 왕조인 아유타야 왕조에 들어서 왕이 브라만교의 의식을 즐겼는데⁹⁾, 이 시기에 태국의 왕권은 불교의 우주관과 브라만교의 사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업(業, Karma)이라고 칭하는 과보(果報)로써 설명하는데, 중생들의 행위로부터 빚어지는 갖가지 업으로 인해 번뇌가 생기고, 이 번뇌들이 윤회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¹⁰⁾ 때문에 사회 위계구조 속에서 인간의 지위는 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써, 불교는 태국인에게 사회, 정치적 질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게 되었다.¹¹⁾

본래 아유타야 왕조는 전형적인 상좌부불교 국가이나¹²⁾ 당시 인도 교역상인들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로의 활발한 진출로 인해 인도의 종교가 전파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인도화'가 이루어졌다.¹³⁾ 아유타야 왕조 또한 힌두원류의 크메르 문명과 브라만니즘(Brahmanism)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왕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브라만 사제를 통해 이상적인 통치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국왕 대관식, 충성맹세식과 같은 중요한 왕실의례가 브라만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¹⁴⁾ 이 시기에 브라만교의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 등이 태국의 것으로 발전하여 태국의 불교에는 브라만교의 요소가 많이 융합되게 되었고¹⁵⁾, 이와 같이 불교와 브라만교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융합되는 것을 태국의 종교적 혼합주의(syncretism)라고 한다.¹⁶⁾

브라만교에서 태양과 달의 숭배는 위대한 의미를 지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나바그라하(Navagraha)라고 하는 아홉의 성좌신군(星座神群)이 있는데¹⁷⁾,

이들은 인도의 천문학과 점성술에서 중요시하는 9개의 천체의 신을 칭한다.¹⁸⁾ 아홉 개의 천체는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일식과 월식으로, 태양의 신은 쑤리야(Surya), 달의 신은 찬트라(Chandra) 혹은 쏘마(Soma)이고, 화성(火星)의 신은 망갈라(Mangala), 수성(水星)의 신은 부다(Budha), 목성(木星)의 신은 브리하스빠띠(Brihaspati), 금성(金星)의 신은 슈크라(Shukra), 토성(土星)의 신은 샨니(Shani), 일식(日食)의 신은 라후(Rahu), 월식(月食)의 신은 케투(Ketu)이다.¹⁹⁾

브라만교의 나바그라하와 유사하게, 현재 태국의 불교에는 각각의 요일의 수호신이 있다. 정확히 말해서 일곱 가지의 특정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처이다. 이를 태국에서는 요일별 일곱 부처, 즉 칠일불은 나바그라하의 아홉 천체 중에서 일식과 월식을 제외한 일곱 개의 천체를 상징하며, 이러한 천체는 일주일의 요일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부처 또한 그들이 상징하는 천체에 따라서 요일을 수호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은 팡 타와이 네뜨(Paang Tawai Netr), 월요일은 팡 함 사무뜨(Paang Harm Samoot), 화요일은 팡 싸이야즈나(Paang Saiyasna), 수요일은 팡 움바뜨(Paang Oomboot), 목요일은 팡 능 싸마딕(Paang Nung Samadhirik), 금요일은 팡 룸 풍(Paang Rum Peung), 토요일은 팡 나가 프락(Paang Naga Prok) 라는 부처가 각 요일을 상징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천왕과 같이 사방(四方)을 수호하는 신들은 있으나 천체나 요일을 수호하는 신은 흔치 않은 관습으로, 태국의 불교에 브라만교 문화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바그라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태국 칠일불(七日佛)의 자세와 상징

태국의 칠일불은 각각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자세들은 부처가 열반에 이르는 모습, 깨달음을 얻는 순간과 같이 부처의 생애의 특별한 사건들을 표현한 것이며, 각 부처들은 일주일의 특정 요일을 수호한다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자신들

이 태어난 요일을 중요시하고 자신이 태어난 요일을 수호하는 부처에게 가호를 빈다. 칠일불은 태국인의 생일과 관계가 있는 만큼 태국인들의 생활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어서 태국의 사원에는 칠일불의 불상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 1>²⁰⁾은 태국 치앙마이외의 왓 프라탓 도이수텡(Wat Phrathat Doi Suthep) 사원에 모셔져 있는 칠일불로, 신자들은 이 불상에 자신의 나이만큼 물을 뿌리거나 불상 주변을 돌면서 소원을 빈다.

1. 팡 타와이 네뜨(Paang Tawai Netr)

팡 타와이 네뜨는 일요일을 수호하고, 빨간색을 상징하며, 똑바로 서서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를 하고 있다. 모은 손은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있으며, 이 자세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를 상징한다.²¹⁾ 팡 타와이 네뜨는 브라만교 나바그라하의 썬리아(Surya)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상징한다.

2. 팡 함 사무뜨(Paang Harm Samoot)

팡 함 사무뜨는 월요일을 수호하고, 노란색을 상징하며, 오른손을 들고 서있는 자세이다. 들고 있는 오른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보호와 가호의 수인이며²²⁾, 이 자세는 일가친척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부처가 그것을 평화적으로 타협시키기 위해 설득할 때 취하는 자세이다.²³⁾ 팡 함 사무뜨는 나바그라하의 찬트라(Chandra)와 같이 천체 중에 달을 상징한다.

3. 팡 싸이야즈나(Paang Saiyasna)

팡 싸이야즈나는 화요일을 수호하고, 분홍색을 상징하며, 오른쪽으로 누워서 양 발을 모으고 오른손을 피고 있는 자세인데, 이 자세는 부처가 81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 반열반(Parinirvana)이라고 하는 완전한 열반을 이루던 때를 상징한다.²⁴⁾ 팡 싸이야즈나는 나바그라하의 망갈라(Mangala)와 같이 화성을 상징한다.

4. 팡 움바뜨(Paang Oombaatt)

팡 움바뜨는 수요일을 수호하고, 녹색을 상징하며, 자세는 시주 그릇을 들고 서있는 모습으로, 부처가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에 있는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화를 의미하는 불상이다. 부처가 고향에 돌아온 다음날, 그는 시주그릇을 들고 마을을 돌면서 공양을 청했고, 과거에 왕자였던 부처가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전의 부유한 삶을 모두 버린 부처의 모습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²⁵⁾ 팡 움바뜨는 나바그라하의 '붓다(Budha)'와 같이 수성을 상징하는데, 나바그라하의 '붓다(Buddha)'는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Budha)'를 칭하는 것이 맞지만 브라만교에서는 마족들에게 '이단의 교리'를 설교하여 브라만교를 저버리게 만들어서 힘을 잃은 마족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존재로 등장한다.²⁶⁾

5. 팡 능 싸마딕(Paang Nung Samadhirik)

팡 능 싸마딕은 목요일을 수호하고, 주황색을 상징하며, 기본적인 목상자세를 취하고 있다. 만개한 연꽃 위에서 양 발바닥이 위를 향하여 보이도록 앉아, 양 손은 무릎 위에 두되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어서 발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한 자세이다. 이 자세는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할 때 취했던 자세인데, 부처 이전에도 고대의 수행자들이 정신집중을 위해 주로 취했던 자세이다.²⁷⁾ 팡 능 싸마딕은 나바그라하의 브라하스빠띠(Brihaspati)와 마찬가지로 목성을 상징한다.

6. 팡 림 풍(Paang Rum Peung)

팡 림 풍은 금요일을 수호하고, 파란색을 상징하며, 양 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고 서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모은 손은 팡 타와이 네뜨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있다. 이 자세는 완전한 영적 변화를 상징하는데, 위파사나(Vipassana)라는 명상을 통해 얻은 자비롭고 평온한 평정상태를 표현한다.²⁸⁾ 팡 림 풍은 나바그라하의 슈끄라(Shukra)와

같이 금성을 상징한다.

폭풍우로부터 부처를 보호했다고 한다.²⁹⁾ 팡 나가 프락은 나바그라하의 샤니(Shani)와 같이 토성을 상징한다.

7. 팡 나가 프락(Paang Naga Prok)

팡 나가 프락은 토요일을 수호하고, 보라색을 상징하며, 부처가 따리를 튼 나가(Naga)위에 앉아있는 형상이다. 이 뱀은 무찰린다(Muchalinda)라고하는 나가 왕으로 머리가 일곱 개 혹은 아홉 개가 달렸는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때 악마 마라가 폭풍우를 몰고 오자 무찰린다가 자신의 머리를 우산처럼 펼쳐

이상과 같은 태국의 칠일불의 형상과 상징, 그 자세의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태국인들은 이러한 부처들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 <그림 2>³⁰⁾의 팔찌 참(Charm)이나 <그림 3>³¹⁾의 아물렛(Amulet)과 같이 장신구에 각 부처를 그려 넣거나 조각하기도 한다.

<표 1> 태국 칠일불(七日佛)의 자세과 상징

칠일불	상징요일	상징색채	불상	자세와 상징
Paang Tawai Netr	일요일	빨간색	 - 저자촬영, 2014	똑바로 서서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를 상징
Paang Harm Samoot	월요일	노란색	 - 저자촬영, 2014	오른손을 들고 서있는 자세 일가친척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부처가 설득하는 것을 상징
Paang Saiyasna	화요일	분홍색	 - 저자촬영, 2014	오른쪽으로 누워서 양 발을 모으고 오른손을 괴고 있는 자세 부처의 완전한 열반을 상징
Paang Oomboot	수요일	녹색	 - 저자촬영, 2014	시주 그릇을 들고 서있는 자세 부처가 고향인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에서 시주를 청하던 사건을 상징

Paang Nung Samadhirak	목요일	주황색	 <p>- 저자촬영, 2014</p>	<p>양 발바닥이 위를 향하여 보이도록 앉아, 양 손은 무릎 위에 두되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어서 발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한 자세 부처의 목상을 상징</p>
Paang Rum Peung	금요일	파란색	 <p>- 저자촬영, 2014</p>	<p>양 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고 서있는 자세 부처의 완전한 영적 변화를 상징</p>
Paang Naga Prok	토요일	보라색	 <p>- 저자촬영, 2014</p>	<p>부처가 뱀을 탄 나가(Naga) 위에 앉아있는 자세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때 무찰린다가 폭풍으로부터 부처를 보호하던 것을 상징</p>



〈그림 1〉 왓 프라탓 도이수텡(Wat Phrathat Doi Suthep)사원의 칠일불
- <http://www.dakiniswereld.nl>



〈그림 2〉 칠일불과 각 상징색을 활용한 팔찌 참(Charm)
- <http://www.thaiamuletsales.com>



〈그림 3〉 칠일불 아물렛(Amulet)
- <http://www.thaiamuletsales.com>

IV. 태국 칠일불(七日佛)의 상징색채와 복식

요일별로 상징색이 정해져있는 태국 칠일불의 독특한 색채관념은 태국의 국기에도 드러날 만큼 태국의 문화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태국의 국기를 살펴보면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의

세 가지 색 띠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국기가 제정된 것은 라마 6세(Vajiravudh, 1917~1925)의 치세였던 1917년으로, 태국은 통치하는 국왕의 태어난 요일에 따라 왕실의 상징색도 바뀌어왔는데, 당시 국왕이었던 라마 6세의 상징 색상이었던 파란색이 왕실을 상징하는 색으로써 국기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태국 불교에서는 흰색 코끼리가 왕실과 국가를 지켜준

다고 하여 신성하게 여겼는데, 같은 백락으로 흰색이 성스러운 색이자 불교를 상징하는 색으로써 국기에 사용되었다.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태국의 문화는 왕실과 불교를 향한 존경과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색채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 태국 칠일불(七日佛)의 상징색채와 전통복식

태국에 칠일불이 각각의 요일을 수호하는 관습이 생긴 것은 아유타야 왕조 시기에 브라만교가 태국의 불교와 융합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요일에 따라 특정한 색상을 신성시 하는 관습도 이즈음에 생겨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요일을 상징하는 부처의 형상들은 각각 행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상징 색상도 있는데, 태국인들은 이 색상들을 신성하게 여겨 각 요일에 해당하는 색상을 입으면 그 요일을 관장하는 부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각 요일에 입는 의복의 색상은 아유타야 왕조에 정해진 이후로 차크리 왕조의 라마 2세(Nabhalai, 1767-1824)의 통치기간과 라마 5세(Chulalongkorn, 1853-1910)의 통치기간에 재해석되어 두 번의 변화를 거쳤다.

라마 2세의 통치기간 중에는 각각의 요일과 상징 색상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여 보다 구체적인 복이나 행위를 언급했다. 일요일에 빨간색을 입으면 큰 행운

이 따르고, 월요일에 흰색을 입으면 장수할 것이라고 믿었고, 화요일에는 파란색과 보라색을 함께 입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다.³²⁾ 수요일은 녹색을 위한 날이고, 목요일은 노란색과 주황색을 입으며, 금요일에는 회색 옷을 입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토요일에는 보라색 계통을 배열하여 입는다고 하였다.³³⁾ 이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인 쉰톤 푸(Sun-thorn Phu)의 시에 요일과 복식 색채가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³⁴⁾

라마 5세의 통치기간에도 관습이 변하였는데, 라마 2세 때와는 반대로 복을 언급하기보다는 옷의 색상을 파 사바이(Pha Sabai)와 파 총카벤(Pha Chung-kaben)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파 사바이는 <그림 4, 6>³⁵⁾³⁶⁾과 같이 어깨에 대각선으로 두르는 긴 천으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몸을 한두 바퀴 감아 돌린 후 남은 부분은 왼쪽 어깨에 걸쳐서 뒤로 늘어뜨린다.³⁷⁾ 파 총카벤은 <그림 5, 7>³⁸⁾³⁹⁾와 같은 형태의 태국 전통 하의로, 한 장의 천을 허리에 감아서 바지의 형태로 만들어 입는 것을 말한다.⁴⁰⁾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하며, 파 사바이와 함께 입기도 한다.

일요일에는 파 총카벤은 빨간색, 파 사바이는 연녹색을 입거나 반대로 파 총카벤에 연녹색, 파 사바이에 빨간색을 입었다.⁴¹⁾ 월요일에는 파 총카벤은 담황색, 파 사바이는 담청색이나 진분홍색을 입고, 화요일에는 파 총카벤은 암청색, 파 사바이는 빨간색을 입으며, 수요일에는 파 총카벤은 철흑색이나 회주석



<그림 4> 1900년 파 사바이
- Thai Textiles, p. 26



<그림 5> 1924년 파 총카벤
- 아시아 전통복식, p.84



<그림 6> 현대 파 사바이
- <http://blog.naver.com/>



<그림 7> 현대 파 총카벤
- http://blog.naver.com

색, 파 사바이는 황토색을 입었다.⁴²⁾ 목요일에는 황
 록색 파 충카벤에 선홍색 파 사바이를 입거나 주황
 색 파 충카벤에 담록색의 파 사바이를 입고, 금요일
 에는 암청색의 파 충카벤과 노란색의 파 사바이를
 입으며, 토요일에는 보라색의 파 충카벤과 연회색의
 파 사바이를 입었다.⁴³⁾

이처럼 요일마다 각각 다른 색상의 옷을 입는 것
 은 당시로선 금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관습을 지키며 옷을 입는 다는 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때문에 이 관습은 왕실과 귀족을 중
 심으로 계속되었고, 라마 5세 통치기간의 관습이 현
 재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유행에 따라 요일의 색이
 변화하여⁴⁴⁾ 일요일은 빨간색, 월요일은 노란색, 화요
 일은 분홍색, 수요일은 녹색, 목요일은 주황색, 금요
 일은 파란색, 토요일은 보라색과 같이 요일별로 한
 가지 색상으로 간소화되어 정리되었다.



〈그림 8〉 푸미폰 국왕의 85번째
 탄신일에 국왕의 상징색인 노란색 옷을
 입고 국왕기를 든 사람들(2012)
 - <http://www.demotix.com>



〈그림 9〉 태국 왕비 탄신일에 왕비의
 상징색과 왕비의 거리 행렬(2012)
 - <https://www.flickr.com>



〈그림 10〉 우볼라타나
 (Ubolratana) 공주의 상징색인
 빨간색 깃발
 - <http://commons.wikim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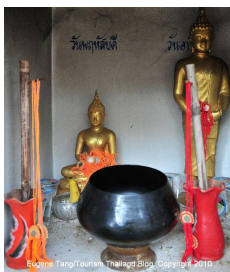
〈그림 11〉 월요일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화요일의 상징색인 분홍색 티셔츠
 - <http://preapis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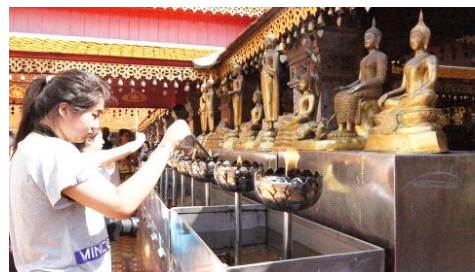
〈그림 12〉 목요일의 상징색인
 주황색과 금요일의 상징색인 파란색
 팔찌
 - <http://papam.tistory.com>



〈그림 13〉 칠일불 색채 장신구
 - <http://www.eugenegoesthailand.com>



〈그림 14〉 칠일불에 바친 공양물
 - <http://www.eugenegoesthailand.com>



〈그림 15〉 칠일불에 공양하는 모습
 - <http://svc1365.tistory.com>

2. 태국 칠일불(七日佛)의 상징색채와 현대복식

칠일불의 상징색채에 따라 요일별로 특정색의 복식을 입는 것은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관습인 만큼 현재도 왕실을 통해서 이 상징색채를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

태국의 현 국왕인 라마 9세(Phumiphon Adunyadet, 1927~)는 월요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요일의 색인 노란색이 국왕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고, 때문에 현재 태국에서 노란색은 왕실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부인인 시리킷(Sirikit) 왕비는 금요일에 태어나서 금요일의 색인 파란색이 왕비를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때문에 태국인들은 국왕의 탄신일인 12월 5일이 되면 대부분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깃발까지 흔들며 국왕의 탄신을 축복한다. <그림 8>⁴⁵⁾은 현 푸미폰 국왕의 85번째 탄신일인 2012년 12월 5일의

사진으로, 수많은 태국국민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태국국기와 국왕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왕비의 탄신일인 8월 12일엔 <그림 9>⁴⁶⁾처럼 온통 파란색 옷과 왕비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태국 정치상황에도 드러나서 반정부 세력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국왕을 수호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왕족들에게는 왕족 개개인을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는데, 이 깃발은 대부분 왕족의 탄생요일의 색상을 바탕으로 하여 신성한 기호가 그려져 있다. 이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모든 왕족들은 그들의 탄생요일의 색상이 각자의 상징색상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그림 10>⁴⁷⁾은 태국의 우볼라타나(Ubolratana) 공주의 깃발로, 그녀의 탄생요일인 일요일의 빨간색 깃발이다.

일반 태국인들도 자신들이 태어난 요일을 따져서

<표 2> 태국의 칠일불의 상징색채와 복식색채의 변화

칠일불	상징요일	상징색채	전통복식색채			현대복식색채
			라마2세 시대	라마5세 시대	라마5세 시대 이후	라마9세 시대
팡 타와이 네뜨 Paang Tawai Netr	일요일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과 충카벤, 연녹색 과 사바이/ 연녹색 과 충카벤, 빨간색 과 사바이	빨간색	빨간색
팡 함 사무뜨 Paang Harm Samoot	월요일	노란색	흰색	담황색 과 충카벤 담청색 또는 진분홍색 과 사바이	노란색	노란색
팡 싸이아즈나 Paang Saiyasna	화요일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암청색 과 충카벤 빨간색 과 사바이	분홍색	분홍색
팡 움바뜨 Paang Oombaat	수요일	녹색	녹색	철흑색 또는 회주석색 과 충카벤 황토색 과 사바이	녹색	녹색
팡 능 싸마딕 Paang Nung Samadhirik	목요일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황록색 과 충카벤, 선홍색 과 사바이/ 주황색 과 충카벤, 담록색 과 사바이	주황색	주황색
팡 룸 풍 Paang Rum Peung	금요일	파란색	회색	암청색 과 충카벤 노란색 과 사바이	파란색	파란색
팡 나가 프락 Paang Naga Prok	토요일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과 충카벤 연회색 과 사바이	보라색	보라색

그 요일의 상징 색상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준다고 여긴다. 때문에 <그림 11>⁴⁸⁾와 같이 자신의 생일 요일에 따라서 그 요일에 정해진 색상의 옷을 입거나, <그림 12, 13>⁴⁹⁾⁵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곱 색상 중 요일을 상징하는 장신구를 몸에 지닌다. 또는 <그림 14>⁵¹⁾에서 나타나듯이 요일 색의 공양물을 불상에 바치거나 <그림 15>⁵²⁾와 같이 기름을 붓기도 한다.

태국 칠일불의 상징색채에 따른 복식색채는 아유타야 왕조에 생긴 이후로 차크리 왕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 현재는 라마 5세 통치기간의 관습이 전해내려 온 것으로⁵³⁾, 아유타야 왕조 시기에 관습이 생긴 이후로 차크리 왕조 시기에 두 번의 변화를 거쳤으나 두세 가지의 색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라마 5세 통치기간에는 하의인 파 쉐카벤과 상의인 파 사바이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정해져 있었으나, 유행에 따라서 변화하여 현재는 라마 5세 통치 시기 이전의 관습처럼 요일에 따라 한 가지 색상만이 남아있다. 이러한 태국 칠일불의 상징색채와 복식색채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V. 결론

색채란 고대부터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거나 신분 계급을 구분하는 가시적인 요소로 활용되어 통치수단으로 활용된 예가 많았다. 특히 태국의 경우 쉐코타이 왕조에 불교가 유입된 이래, 불교로 인해 왕권 또한 높아지면서 태국의 문화는 왕실과 불교를 향한 존경과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아유타야 왕조를 기점으로 브라만교와 불교가 융합되면서 태국의 불교는 브라만교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태국의 종교적 혼합주의는 태국의 색채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에는 브라만교 나바그라하의 영향으로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일곱 천체를 상징하는 부처가 있다. 일곱 천체는 각각 일주일의 요일들을 상징하기에 부처들은 요일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일요일의 팡 타와이 네뜨(Paang Tawai Netr)는 빨간색을, 월요일의 팡 함 사무뜨(Paang Harm Samoot)는

노란색을, 화요일의 팡 싸이야즈나(Paang Saiyasna)는 분홍색을, 수요일의 팡 움바뜨(Paang Oombaatt)는 녹색을, 목요일의 팡 능 싸마딕(Paang Nung Samadhir)은 주황색을, 금요일의 팡 룸 풍(Paang Rum Peung)은 파란색을, 토요일의 팡 나가 프락(Paang Naga Prok)은 보라색을 상징한다. 태국인들은 이러한 각 요일을 상징하는 색상의 옷을 입음으로써 각 부처의 수호를 받는다고 믿는다.

일주일의 각 요일을 수호하는 부처가 있고, 이에 각 요일들을 각각 상징하는 색상이 있어서 그 색상의 옷을 입음으로써 부처의 수호를 받는다는 관습은 태국의 독특한 색채문화로 발전하였다. 이는 단순한 상징색채가 아닌 태국인들의 종교의 일면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요일별로 특정한 색상의 의복을 입는 관습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여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눈에 띄게 구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리고 왕족의 탄생 요일의 상징 색상을 그들을 상징하는 색으로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태국인들은 특정 색채와 복식을 통해 왕실에 대한 존경심과 경의를 표현하게 되었다.

왕족이 아닌 일반 태국 국민들도 자신의 탄생 요일의 상징 색상을 특별히 여기는데, 이러한 풍습은 마치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매해를 십이지신의 동물 중 하나의 해로 칭하며 개인의 생년에 따라 어느 동물의 해에 태어났는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풍습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한·중·일에서는 해마다 십이지신의 특징으로 그 의미가 새겨지는 만큼 태어난 년도를 중요시하는 반면, 태국인들은 태어난 년도나 날짜보다 요일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생일이 되면 태어난 요일을 상징하는 불상에 물을 붓고 불공을 드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 색상의 의복을 입거나 장신구를 지님으로써 수호와 복을 기원한다.

이처럼 태국 칠일불의 상징색채에 따른 복식색채는 본래는 종교의 일환이자 신분제로 인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으나, 하위계층으로 전파되면서 현재에 이르러선 자신 혹은 타인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적인 면을 강하게 지니면서, 특정 색상을 자신의 상징 색상으로 여기며 개인의 을 표현하는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의 상징색채와 복식에 대하여 종교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상징색채와 복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서봉하 (2014), 아시아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비교 연구: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64(6), p. 63.
- 2) 김향단, 유보현 (2010), 중국인의 색채관과 복식에 나타난 색채의 상징과 의미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3), p. 112.
- 3) 음정선, 채금석 (2006), 한국·일본의 전통 색채관과 복식에 관한 비교연구, *복식*, 56(6), p. 30.
- 4) 백옥장, 김영순 (2008), 한국과 베트남 전통색채의 비교문화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8년도 봄 정기학술대회
- 5) 황규희 (2009), 태국정치에서 바라본 색의 상징성, *수완나부미*, 1(1), pp. 111-120.
- 6) *Ibid.*, pp. 111-120.
- 7) Susan Conway (1992), *Thai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ubns Ltd, p. 55.
- 8) 김홍구 (1996), 태국불교와 정치적 정통성, *동남아시아연구*, 4(96.1), p. 1.
- 9) 한국태국학회 편 (1998), *태국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 76.
- 10) 정병조 (1994), 불교의 우주관, *과학사상*, 10(8), p. 85.
- 11) 김홍구, *op. cit.*, p. 58.
- 12) *Ibid.*, p. 45.
- 13) 이은구 (1997), *힌두교의 이해*, 서울: 세창출판사, pp. 285-287.
- 14) 김진영 (2011), 근대 동남아불교의 힌두문화 수용-태국 라마끼엔의 힌두신화와 불교적 변용, *동남아시아연구*, 21(2), pp. 50-51.
- 15) 김홍구, *op. cit.*, p. 65.
- 16) Kuanpoonpol, Priyawat (1990), Court Brahmans of Thailand and the celebration of the Brahmanic New Year, *Indo-Iranian Journal*, 33(1), p. 22.
- 17) 안넬리제, 페터 카일하우어 (1994), *힌두교의 그림언어*, 서울: 동문선, p. 291.
- 18) “구요성”, 자료검색일 2014. 6. 7, <http://ko.wikipedia.org/wiki/%EA%B5%AC%EC%9A%94%EC%84%B1>
- 19) 안넬리제, 페터 카일하우어, *op. cit.*, p. 291.
- 20) “왓 프라탓 도이수텡(Wat Phrathat Doi Suthep)사원의 불상”, 자료검색일 2014. 7. 20, <http://www.dakini.swereld.nl/Geboortedag-Boeddha.html>
- 21) 자료검색일 2014. 6. 8, http://www.chiangmai-chiangrai.com/buddha_images_for_days_of_week.html
- 22) Eva Rudy Jansen (2002), *The Book of Buddhas*, New Delhi: New Age Books, p. 6.
- 23) 자료검색일 2014. 6. 8, http://www.chiangmai-chiangrai.com/buddha_images_for_days_of_week.html
- 24) Meher Mearthur (2004), *Reading Buddhist Art*, London: Thames & Hudson Ltd, pp. 106-107.
- 25) Jackie Menzies (2003), *Buddha: Radiant Awakening*, Sydney: Art Galley of New South Wales, p. 32.
- 26) 사이 다케오 (2001), *인도 만다라 대륙*, 서울: 도서출판 들녘, p. 50.
- 27) Meher Mearthur, *op. cit.*, p. 115.
- 28) 자료검색일 2014. 6. 8, http://www.chiangmai-chiangrai.com/buddha_images_for_days_of_week.html
- 2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pp. 14-15.
- 30) 자료검색일 2014. 7. 25, <http://www.thaiamuletsales.com/buy-colorful-buddha-charms-item-4101.htm>
- 31) 자료검색일 2014. 7. 25, <http://www.thaiamuletsales.com/buddha-birthday-postures-saturday.htm>
- 32) Susan Conway, *op. cit.*, p. 55.
- 33) *Ibid.*, p. 56.
- 34) พรทวี พึ่งจรรย์ & มิตตปุณฺเฑ อิศคะ & มิตตปุณฺเฑ (2008), *สีและกรรมวิธี*,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 9.
- 35) “파 사바이”, 자료검색일 2014. 9. 3, <http://en.wikipedia.org/wiki/Sbאי>
- 36) “파 사바이”, 자료검색일 2014. 3. 24, <http://blog.naver.com/PostView.nhn?>
- 37)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p. 82.
- 38) *Ibid.*, p. 84.
- 39) 자료검색일 2014. 9. 1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_eumedu&logNo=120142601840&beginTime=0&jumpingVid=&from=section&redirect=Log&widgetTypeCall=true
- 40) 황춘섭 (2004), *세계전통복식*, 서울: 수확사, p. 161.
- 41) “Pressing, Perfuming, and Preserving: Caring for Textiles in the Inner Court” Exhibitions, 2012. 8. 9 - 2012. 9. 30, Queen Sirikit Museum of Textiles in Bangkok.
- 42) Susan Conway, *op. cit.*, p. 56.
- 43) Susan Conway, *op. cit.*, p. 56.
- 44)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op. cit.*, p. 79.
- 45) “A Parade for the Queen Sirikit’s Birthday on 2012”, 자료검색일 2014. 8. 24, https://www.flickr.com/photos/hko_s/7787900864/
- 46) “Flag of Princess Ubolratana”, 자료검색일 2014. 8. 20,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Princess_Ubol_Ratana.jpg
- 47) “Thailand Celebrates King Bhumibol’s 85th birthday”, 자료검색일 2014. 8. 20, <http://www.demotix.com/news/1656763/thailand-celebrates-king-bhumibols-85th-birthday#media-1656756>
- 48) 자료검색일 2014. 8. 28, <http://preapism.com/2009/05/13/thailands-shirt-wars/>
- 49) 자료검색일 2014. 8. 28, <http://papam.tistory.com/category/?page=28>

- 50) 자료검색일 2014. 6. 9. <http://www.eugenegoesthailand.com/?p=7610>
- 51) 자료검색일 2014. 6. 9. <http://www.eugenegoesthailand.com/?paged=82>
- 52) 자료검색일 2014. 9. 10. <http://svc1365.tistory.com/930>
- 53)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op. cit.*, p. 79.